

ACC 10주년 기념 ‘아시아 연출 3부작-Remapping ASIA’...13-15일 예술극장

3人 3色 예술로 펼쳐지는 아시아의 기억·연대

한국·대만·태국의 각기 다른 예술관과 아시아적 시각이 담긴 실험적 작품 세계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13일부터 15일까지 ACC 예술극장에서 ‘아시아 연출 3부작 - Remapping ASIA’ 공연을 올린다. 개관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Remapping ASIA’는 한국·대만·태국의 연출가들이 2년에 걸쳐 주제 발굴과 교류, 사회·문화 연구를 함께 진행한 공동 워크숍 프로젝트다.

전쟁 기억과 고립, 치유, 인간의 연대 한국·대만·태국 연출가 작품 무대에

세 편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대만 대표 국립극장인 국가양청원과 공동 제작으로 마련됐다. 전쟁의 기억과 고립, 치유, 인간의 연대 등 동시대 아시아의 현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먼저 13일과 15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는 대만 연출가 원 쓰니의 신작 ‘나를 잊지 말아요’가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아시아 현대사의 깊은 상흔인 ‘전쟁’을 주제로, 기억과 연대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대만·필리핀·한국 예술가들이 모여 각기 다른 역사적 기억을 되짚으며 전쟁 기념비 속에 기록되지 못한 연결점을 찾아간다. ‘경험하지 못한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기억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구한다.

14-15일 같은 무대에서는 태국 연출가 와인 차론 차마이의 ‘한낮, 그리고 허공을 떠도는 연약한 것들: 그다음, 점프! 점프! 점프!’가 이어진다.

와인 차론 차마이는 사회적 현상과 인간 존재를 섬세하고 실험적으로 다루며 주목받고 있는 젊은 창작자다. 이번 작품은 현대 도시 자본주의 속 고립과 외로움, 성취 중심 사회에서 좁아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한다. 작품은 타인·자연·영적 믿음과의 새로운 연결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 같은 기간 예술극장 극장2에서는 한국 연출가 오세혁의 ‘안타-사면 사면 클럽’이 공연된다.

연극, 뮤지컬, 마당극, 영화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사회적 현상을 대중적 언어로 풀어온 오 연출가는 이번 작품에서 ‘계엄령’과



대만 연출가 원 쓰니



태국 연출가 와인 차론 차마이



한국 연출가 오세혁

‘샤머니즘’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시아 현대사를 교차시킨다. 억압의 역사 속에서도 이어져 온 생명과 신명의 에너지를 EDM 비트와 결합한 ‘굿판이자 클럽’의 형식으로 재구성해, 잃어버린 ‘놀이 권리’를 되찾는 집단적 의식을 그린다. 관객은 무대 위에서 신이자 사면으로 참여하며, 놀이를 통한 저항과 치유, 연대의 미래를 함께 노래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티켓은 전석 2만 원이다. 세 작품 모두 관람할 경우 50%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할 수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공동 제작 프로젝트는 아시아 예술가들이 서로의 역사와 현실을 교차시키며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뜻깊은 시도”라며 “아시아가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만들어내는 예술적 에너지를 관객들이 생생히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권 장편상 ‘파기상점’, 단편상 ‘자매의 등산’ 선정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 성료

제16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0일 폐막식을 끝으로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올해 영화제는 세계 11개국에서 온 56편(장편 23편, 단편 33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우리는 빛으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번 영화제에는 100여 명의 게스트와 4천여 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폐막식에서는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에 이어 ‘권 장편상’ 장·단편 경선 시상과 ‘여성영화제가 사랑한 올해의 영화상’ 시상이 진행됐다.

권 장편 작품상은 임지수 감독의 ‘파기상점: 깨진 그릇 붙이기’, 권 단편 특별상은 김이향 감독의 ‘이방인의 텃밭’, 권 장편 관객상은 오재형 감독의 ‘소영의 노력’이 각각 수상했다.



단편 부문에서는 김수현 감독의 ‘자매의 등산’이 권 작품상과 관객상(상금 50만원)을 동시에 수상했으며, 노희정 감독의 ‘자궁메이트’가 권 특별상(상금 50만원)과 ‘여성영화제가 사랑한 올해의 영화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여성영화제가 사랑한 올해의 영화상’은 지역 여성영화제 네트워크(대구·부산·서울·익산·인천·전북·제주)가 지역

여성 감독들의 창작 의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재희 집행위원장은 “올 한해 ‘우리는 빛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로의 이야기를 비추고 다양한 목소리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영화제가 영화인들과 관객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어깨가 절로 들썩~”

15일 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공연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가·무·악 종합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5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전악당에서 열리는 토요일상설공연 ‘국악의 향연’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기악합주, 판소리 심청가 대목, 기악독주, 무용, 남도민요, 사물놀이까지 총 6개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은 풍류굿거리 선율에 남도민요 성주풀이를 더해 만들어진 기악합주 ‘남도굿거리’로



문을 연다.

이어 심청가 중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심봉사의 여정을 그린 ‘황성 올라가는 대목’, 기악독주 ‘지영희류 해금산조’, 진도북춤과 소고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작품인 ‘동고락’으

로 무대를 꾸민다.

남도를 대표하는 향토민요 ‘육자배기’와 팽과리, 북, 장구, 징 네 가지 악기로 무대를 가득 채울 사물놀이 ‘삼도농악가락’을 끝으로 무대는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지리산 대화엄사, 청년 템플스테이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교구장 우석스님)가 천년의 역사문화공간인 화엄원 특설마당에서 아웃도어 템플스테이 ‘하신화심(下身華心)’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숙식하는 ‘캠핑’과 전통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 확장 프로그램이다.

우석스님은 “하신화심은 ‘몸을 낮추는 순간,

마음은 화엄의 꽃처럼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추운 겨울 야외에서 1박 2일간 머물며 몸을 낮춰 비우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캠핑스테이는 오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총 4회(회당 1박 2일) 진행된다.

1회차는 11월 15-16일, 2회차는 11월 29-30일, 3

회차는 12월 5-6일, 4회차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되며, 회차별 정원은 30명이다.

참가 대상은 20-30대 청년세대로 한정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1-3회차는 사회공익적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의 정신적 휴식과 자아 성장을 지원한다. 마지막 4회차는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화엄사 공식 홈페이지와 SNS(@kkotsnim)를 통해 참가 사연을 접수받으며, 내부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개별 통보된다. 문의는 화엄사 종무실(061-783-7600).

/최명진 기자

시·노래·유머 넘치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15일 대인동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

한국 감성 충전&웃음 치료 연구소 양석승(전 광주대 교수·사진) 소장은 오는 15일 오후 3시 30분 대인동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

소 3층 음악실에서 제44회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가수 오세혁의 민요 태평가·벚노래, 가수 채호의 대금 연주 ‘칠갑산’, 가수 전유창의 ‘멋진 인생’과 ‘그리운 어머니’ 무대 등



이 펼쳐진다. 가수 손희종은 ‘추억의 소야곡’, ‘인생길 나그네길’ 공연을, 가수 조하린은 ‘산다는 게’와 ‘천년학’ 무대를 선보이며 김정희의 벨리댄스 무대도 마련돼 있다.

이날 행사는 양석승 소장의 행운권 추첨으로 마무리된다.

/최명진 기자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묵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

CBS
Media Group™